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시	배포	2020.10.4.(일)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(02-2100-2650)	담 당 자	장 원 석 사무관(02-2100-2654)
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(02-3145-7580)		이 정 두 팀 장(02-3145-7616)
	금융투자협회 본부장 오 세 정(02-2003-9014)		김 중 흥 부 장(02-2003-9370)

제 목 :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☐ 증권사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,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① (대출금리* 산정 적시성 제고) 조달금리를 기준금리(증권사 자체 선정)로 변경하여 매월 재산정하고, 가산금리도 원칙적으로 매월 재산정하여 대출금리에 반영합니다.

* 대출금리 = 조달금리(→기준금리) + 가산금리 + 가감조정금리

② (대출금리 정보 제공 확대)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합니다.

③ (증권담보대출 대출금리 산정기준 마련) 신용거래용자와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투명한 산정기준이 적용됩니다.

☐ '20.10월, 「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(금융투자협회)」이 개정된 후 11월부터 새로운 대출금리가 산정·공시됩니다.

○ 모범규준 개정 이전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.

○ 내년 1분기중 금융당국은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되어 운영되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.

※ [별첨]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